

“교실서 느낀 한계, 구조로 풀겠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전북교육감 출마 선언 공공교육·공공돌봄 시스템 구축 등 핵심 공약 제시

14년동안 교사로 재직하던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내년에 치러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성동 대표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의 위기를 말하기보다 전북교육의 기회를 이야기하고 싶다”며 “교실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교육감으로서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자신의 출마 배경에 대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돕고 싶어도 행정 민원 제도에 막혀 좌절했던 경험이 반복됐다”며 “이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자신의 교사·교육행정·시민활동 경험을 토대로 △공공교육·공공돌봄 시스템 구축 △AI 기반

미래교육 완성 △인성·시민성 중심 전인교육 △학교·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교육·공공돌봄과 관련해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지리적 인프라를 공공교육 영역을 가져와 교육과 돌봄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사는 교육관에 따라 소신껏 가르치고, 학생은 배움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치는 정상적인 배움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교육이 교실 혁명을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AI 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으로 전북형 미래교육을 완성하겠다”며 “학교 행정, 즉 문서 작업 자동화 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 학생 개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등에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학생 맞춤형 학습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가 16일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뉴스시 제공)

유 대표는 “교사 되길 잘했다. 교육청에서 일하는 게 보람 있다. 전북에서 아이 공부시키는 게 자랑스럽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며 “하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 꿈을 이뤄가는 교육, 배움이 즐거운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성동 대표는 전주 동암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서 4년 간 근무했다. 이후 한국교원대에 진학한 뒤 초등학교사로 14년동안 재직했다. 교사로 재직할 당시 만주사민교육교원노조 정책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다. /김재훈 기자

비판적 동남아 발전연구를 향해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오늘 '전동연 학술대회'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소장 전제성)는 연구소 설립기념일(12월 20일)을 맞아 17일 오후 1시 30분,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3에서 '전동연 학술대회 2025: 비판적 동남아시아 발전연구를 향하여'를 개최한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지난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동연 동남아시아 발전모델에 관한 비판적 지역연구'를 주제로 8년간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해당 연구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연구진 간의 방향성과 문제의식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향후 발간될 6권의 연구 총서 가운데 제1권인 '비판적 동남아시아 발전연구를 향하여: 연구 동향과 과제'의 연구 기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학술적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술대회 1부는 최종현 전북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전제성 동남아연구소장의 기조발표, 비판적 동남아시아 발전연구 서설을 시작으로 동남아 정치경제, 개발과 발전, 논쟁, 국제개발협력, 권위주의와 사회운동, 환경과 발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진 전원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는 박사명(강원대), 신윤환(서강대), 이한우(단국대), 박은홍(성공회대), 이상국(연세대), 배기현(서강대), 유예지(서강대), 김태식(Monash University Malaysia), 조영철(강원대), 박윤주(경명대) 등 국내외 동남아시아 연구 및 발전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연구 총서 기획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발전담론에 대한 비판적·대안적 연구를 본격화하고, 국내 동남아 연구의 학문적 지평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1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북서 세계로’ 3년 국제교류 성과 나눔

2025 전북 국제교류수업 성과공유회... 올해 86개 학교서 운영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연계... 저변 확대 기회

올 한해 전북 학교들의 국제교류수업 운영 성과를 나누고 학생과 교사의 글로벌 역량 성장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전주 더메이호텔 세미나실에서 2025 전북 국제교류수업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2025년 국제교류수업 학교 및 2026년 국제교류수업 공모 예정 학교 국제교류수업에 관심 있는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2025년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함께 진행한 시애틀·동경·태국 한국교육원 교사 및 학생 30여 명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86개교에서 국제교류수업학교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28개국 3.191명의 해외 학생들과 온·오프라인으로 교류를 이어갔으며, 이는 연초 목표로 했던 20개국 3,000명을 훨씬 웃도는 성과다.

각 학교들은 실시간 공동수업, 온라인 프로젝트, 발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웠고, 교원들은 국제교류수업 설계·운영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였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학생 국제프로젝트 결과 전시 △학교별 국제교류 운영 사례 발표 △해외 한국교육원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도내 학교 학생과 교사의 사례 발표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해외 학생과 교사의 사례 나눔도 이어져 한층

내실있고 생동감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성과공유회와 연계해 오는 20일까지 ‘한국어교육 기반 교사·학생 초청행사’를 운영한다.

미국·일본·태국 한국교육원 방문단은 성과공유회 참석을 비롯해 △국제교류수업 운영교 방문 △한국문화 체험 △교사 간 수업 교류 △전북 지역 탐방 및 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의 저변을 넓히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북 학생과 교사가 세계와 연결되어 함께 배우는 경험은 미래교육의 핵심 역량인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실의 경계를 넘어 더 많은 국가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학생 대상 농생명·바이오학과 직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취업에 성공한 도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의 대학 진학을 돕는다.

전북교육청은 농생명·바이오 분야 산업체에 채용되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농생명·바이오학과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15일부터 19일까지 4차 5일간 합숙형으로 진행되는 직무교육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직무 역량을 키워 원광대학교 농생명·바이오학과에 안정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이 교육은 △HACCP 운영 실무 △식품 품질관리 △입주기업 현장 투어 △채용 산업체 특강 등 학생들이 일하게 될 산업 현장과 직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교육 기간 동안 △진로 및 직무적성검사 △스피치·자기소개서 특강 △1:1 컨설팅 등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대학 진학에 성공하면 산업체에서 일을 하며 학업을 병행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5년 행정실장 시 역량강화 연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유·초·중·고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16일 2025년 행정실장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요구되는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공직 현장에서 챗GPT를 활용한 문서 작성·행정 지원 등 실질적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강의는 챗GPT 등 생성형 AI의 이해와 실무 활용을 주제로 실제 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프롬프트 작성법, 행정문서 자동화 활용 사례 등을 실습 위주로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만족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연수에 앞서 기록관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록물 관리 교육도 함께 진행해 기록물의 체계적 생산·관리·보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산학·협력 통한 군산시민 건강 증진

호원대 RISE사업단, JB-산업체근로자 등 대상 헬스케어 리빙랩

호원대학교 총장 강희성) H-산업보 건헬스사업단이 지난 15일 산업체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을 포함한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2025 융합 Healthcare 리빙랩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의 전문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 40분까지 군산화원에서 진행됐으며, 새만금 산업체 근로자와 가족을 포함한 군산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리빙랩에는 대학 내부 5개 보건·헬스 학과(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스포츠무도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와 공연미디어학부, 실용음악학과, K-pop학과 등 총 8개 학과가 참여해 융복합 협력 모델을 선보였다. 대학 내부 학과는 건강 체력 부스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학과는 뮤지컬과 K-pop 공연을 통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외 기관도 참여해 전문성을 더했다. 군산의료원은 심뇌혈관 관련 검사와 공공의료 홍보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 물리치료사회와 함성스포츠클럽은 AI 기반 디지털 운동 체력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학 구성원 88명(학생 72명, 교원 8명, 직원 8명)과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며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세 가지 핵심 분야로 운영됐다. 먼저 근골격계 Healthcare 분야에는 물리치료학과, 스포츠무도학과 주관으로 신체 기능 측정, 디지털 자세 측정, 테이핑 및 치료적 마사지 제공하며, 참가자들의 건강 증진을 도왔다.

이어서 심뇌혈관계 Healthcare 분야에서는 간호학과, 응급구조학과 치위생학과가 협력하여 당뇨·혈압·우울증 검사, 심폐소생술 교육, 치아우식/구취 검사 등의 종합 검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마음건강 Healthcare 분야에서는 공연미디어학부, 실용음악학과, K-pop학과가 지원하여 뮤지컬 K-Pop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보이며 참가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올 1~3분기 도내 학교장터 조달 금액 545억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역업체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1~3분기 학교장터(S2B) 조달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456억원보다 89억원 증가한 54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한 금액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학교장터는 교육기관이 학교 교육 기자재 등을 구매하거나 임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주

로 지역업체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분청과 지역 교육지원청, 학교 등에 학교장터 이용을 독려해 이번엔 학교장터 조달 금액 최고 증가율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교육용품 제조업체들이 참여하는 전북교육용품전시회를 단독으로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내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를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 광역농협협의회 협의회 개최... 농림 정책 추진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역과 함께 하는 전북형 농림학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16일 '전북 광역농협협의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농림학교 운영 현황 및 2026년 운동회 돌봄·교육 지원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 간 협업 체계

를 강화하고, 학교밖 돌봄·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및 방학 중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내년에는 학교단위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밖 돌봄·교육 위탁 등 학교와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동회 돌봄·교육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사례 나눔 | 내년 사업 운영방향도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치명 자살선지 위험의전담 유향검출에서 자율 진행될 유보통합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사업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거점형 돌봄기관 시범사업 △특목 말해드림 언어 발달 지원사업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학습공동체 등이 있다.

유보통합 시범사업은 유아·학부모·교직원이 유보통합 이후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돌봄공백 해소 유

아 발달 지원, 교(직)원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거점형 돌봄기관’은 아침·저녁·방학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거점기관을 지정, 협력기관 유아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3개소에서 시범운영했다.

‘특목 말해드림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유치원 84개원 어린이집 84개소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350여 명의 언어 발달 지원 유아에게 검사비를 지원했으며, 각 기관에서는 언어 발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학습공동체’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사가 함께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로 양 기관 교직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운영 사례 나눔을 통해 유보통합 시범사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교육청은 2026년도에도 현장맞춤형 정책을 발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